



제주 유기·유실 반려동물 절반은 안락사

안락사 비율 50% 육박... 입양은 10마리 중 2마리
보호관리시설 포화상태 해소·입양문화 확산 시급

제주에서 유기·유실된 반려동물의 절반이 안락사됐고, 20%가량은 수송과정이나 보호·관리중 폐사했다. 10마리 중 5마리는 안락사, 2마리는 자연사, 그리고 나머지 2마리만 입양되는 실정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유실 반려동물은 연도별로 ▷2021년 5364마리(개 4517, 고양이 847) ▷2022년 4977마리(개 4122, 고양이 855) ▷2023년 4452마리(개 3643, 고양이 809) ▷2024년 3886마리(개 3164, 고양이 722) ▷2025년 3456마리(개 2736, 고양이

720) 등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센터가 보호·관리 중 안락사된 비율은 전국평균(2024년 18.5%)을 넘어 매년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2021년 48.7%, 2022년 49.6%, 2023년 45.1%, 2024년 49.5%, 2025년 47.9% 등이다.

지난해 센터가 보호·관리하던 3710마리 가운데 개 1654마리(44.6%)와 고양이 124마리(16.7%)가 안락사됐다. 또한 유기·유실 상태에서 수송 중 자연사를 하는 사례도 817마리(22.2%)로 적

잖았다. 개는 249마리(7.5%), 고양이는 528마리(72.5%)였다. 주인의 품에 다시 안긴 개는 194마리(6.5%), 고양이는 3마리에 불과했다. 입양·기증은 개 787마리(26.5%), 고양이 125마리(16.8%)였다.

이처럼 입양·기증보다는 대체로 센터에서 전염병이나 폐사 등으로 안락사를 당하거나 자연사가 10마리 중 7마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안락사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2~3배 가량 높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시설 확대 등이 요구된다. 시설 포화로 매년 3000마리 이상의 유기·유실 반려동물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유기·유실 반

려동물 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제2동물보호센터를 개관했다. 센터는 보호·치료·입양·놀이·장묘까지 이어지는 통합 동물복지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센터는 기존 제1동물보호센터의 수용 포화로 인한 불가피한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유기동물의 건강관리 강화와 입양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유기·유실 반려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39마리에 대해 8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내용은 질병 진단·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미용, 보험료 등 최대 25만원 한도다.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t 트럭 수로에 빠져 60대 운전자 사망

1t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이 수로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8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서 1t 트럭이 수로로 추락해 60대 남성 A씨가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차량 내부에 몸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닥터헬기에 의해 제주시 내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가건물서 불...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가건물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한 가건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인근으로 연기가 퍼지면서 동일 신고가 26건 접수됐다.

건물은 샌드위치판넬 형태의 가

건물로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2층에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은 차량 28대와 소방대원 48명 등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불은 오후 5시 55분쯤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차귀도 해상 낚시어선 침수... 인명피해 없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침수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28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쪽 4.6k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기관실 침수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사고 어선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연안구조정을 긴급 투입해 승객 전원을 구조했고, 승객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어선은 침수 중이지만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신창항으로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우도 승합차 사고 운전자 5초 전부터 가속

국과수, 차량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작동 확인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사고 직전부터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운전자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하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돌진 사고로 사상자 14명(사망 3, 부상 11)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약 200m를 돌진해 관광객 등을 들이받았고, 이어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2명(70대 남성·6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국과수의 분석 결과 사고 직전 5초 전부터 승합차의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금탁기자

“과거사정리법 개정 환영”

4·3유족회 “오랜 요구 응답”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책임을 회피해 온 역사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유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된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전에 화장되던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었다”며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유족들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공권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국가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책무라고 말해 왔다”면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 그 유족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백사장 점령한 갯생이모자반 1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 제주바다의 불청객인 갯생이모자반이 쌓여있다.

강희만기자

배터리 열폭주 추정 화재... 전동카트 1대 전소

제주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전동카트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47분쯤 서귀포시 일주서로에 위치한 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카트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신

고가 접수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신고 접수 10분만인 0시 57분쯤 완전히 꺼졌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전동카트는 전날 새벽부터 충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이번 화재가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전동카트 1대가 전소하면서 55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